

ASK 2018 릴레이 인터뷰 1 알프린 카스테어스 바르데 파트너스 CIO

“1800억弗 인도 부실채권 투자 유망”

일시적 재무 악화로 부실화된 인도 상장 대기업 채권 많아 한국선 기업대출 시장에 기회



미국의 부실채권 투자 전문 운용사 바르데 파트너스의 알프린 카스테어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사진)는 “정부가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인도에서 투자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스테어스 CIO는 18일 “인도 정부가 1800억달러(약 194조원) 규모의 부실채권(NPL)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매각되는 부실채권 중 육식을 가려 투자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ASK2018-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 서밋’을 앞두고 그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카스테어스 CIO는 “자산이 많고 실적도 좋은데 일시적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돼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상장 대기업 채권이 인도에 적지 않다”며 “인도 현지 은행들이 이 같은 부실채권들을 시장에 내다파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흥미로운 시장이지만 아직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가 적극 대응을 나설 정도

는 아니다”며 “기업 부실화 징후도 심하지 않아 당장 투자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영 환경과 법 제도가 채권투자에 적합한 시장”이라면서도 “아직 시스템적인 부실 징후가 없어 부실채권 투자 기회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기업대출 등 다른 수익 창출 기회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스테어스 CIO는 “글로벌 동향을 볼 때 신용 사이클이 당장 축소기에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올해는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이 따른 저금리와 낮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급등

하는 등 갑작스런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스테어스 CIO는 부실채권 투자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경기가 나빠지면 은행을 비롯한 여신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쏟아내지만 이를 분석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는 한정돼 있다”며 “분석만 잘하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매력적인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들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과 국가마다 채권과 채무에 대한 법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바르데 파트너스는 1993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설립된 대체투자 운용사로 130억달러(약 14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부실채권 투자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대출, 모기지대출, 부동산-인프라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정재 기자 yoochoo@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5월18일 오후 4시50분

ASK2018-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 서밋
일시: 5월29-30일
장소: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문의: ASK포럼 사무국 (02)360-4209

국민연금 ‘현대모비스 합병 찬반’ 민간 전문위에 맡긴다

키움운용, 트러스트 이어 ‘찬성’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현대모비스 분할 및 현대글로벌과의 합병 안건에 대한 찬반 결정을 민간인도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운명이 주로 교수들로 구성된 8명의 전문위원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보유한 2대 주주여서 안건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의 분할·합병 안건을 의결권 전문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인식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행(회외증권실장)을 비롯한 8명의 실장과 3명의 팀장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가 투자위원회를

열어 행사하지만,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 전문위에 결정요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으로서 전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중요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현대모비스의 국내 모회사인 현대자동차(AS)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벌과 합병한 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겸 정인현 현대차 부회장이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23.3%를 사들여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모비스 주주에게 불리한 안”이라며 반기를 든 데 이어 세계 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해 주춤과가 불투명하다.

현대모비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0.17%이며, 외국인 지분율이 약 49%에

달한다. 9.8%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속속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각을 잡는 분위기다. 키움자산운용은 이날 “지배구조 개편안이 장기적 측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17일 찬성 입장을 내놓은 트러스트자산운용에 이어 두 번째다. 키움자산운용과 트러스트자산운용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0.14%, 0.09% 보유하고 있다.

키움운용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벌 간 합병이 이뤄지면 현대자동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해당사항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유정재/하현형기자 yoochoo@hankyung.com

하나대체운용, 2000억 ‘블라인드 펀드’ 조성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기 전에 자금을 모으는 펀드)를 조성했다. 서울 등 수도권 A급 빌딩이 투자 대상이다.

18일 투자은행(IB)계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최근 ‘국내 코어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 조성을 마쳤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요 출자자로 나서 1000억원을 약정했다. 군안·경찰공제회 등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도 900억원을 받기

로 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도 책임 투자 차원에서 100억원을 넣었다.

이 펀드를 통해 도심과 부도심에 있는 빌딩을 매입할 계획이다.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 7% 수익이 목표다. 매년 투자처를 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대형 부동산 거래에서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 속도가 빠르고 과감한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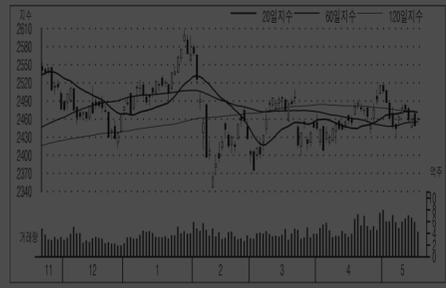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

기업공시 ▲한진중공업=134억원 규모의 부산노파라하수권공사 수주. ▲복합사=하일셀 회장이 2만1000주를 장내 매도. ▲티=168억원 규모의 역화석유가스매매계약 체결.

코스닥시장

기업공시 ▲파티게임즈=권순욱 단독 대표이사에서 권순욱, 박규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에프앤씨=에드컬처=상호를 에스앤씨(프린터)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안석준에서 김명민으로 바꿈. ▲한컴큐어=김현수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윤선 단대표 체제로 변경.

유가증권시장



시황지표: 코스피지수, 이동평균, 이격률, 거래량(만주), 이통평균, 거래대금(억원), 등록종목수, 주가지수(18일) 등 지표

코스닥시장: 주가지수, 코스닥지수, 코스닥200, KRX300, 제조업,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실적증권, 상유외국, 공익채, 외환, 약국, 비금속광물, 철강중공업, 기계, 전기전자, 의료장비, 운수장비, 유통업, 전자기기, 건설, 증권, 서비스업 등 실적

코스닥시장



시황지표: 코스닥지수, 이동평균, 이격률, 거래량, 거래대금(억원), 등록종목수, 주가지수, 코스닥지수, 코스닥200, KRX300, 제조업,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실적증권, 상유외국, 공익채, 외환, 약국, 비금속광물, 철강중공업, 기계, 전기전자, 의료장비, 운수장비, 유통업, 전자기기, 건설, 증권, 서비스업 등 실적

투자주제별 매매동향

투자주제별 매매동향: 구분, 금용투자, 자산운용, 은행, 보험, 기관채, 개인, 외국인 매도, 매수,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대금, 순매수량, 순매도대금, 순매도량

기관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대금, 순매수량, 순매도대금, 순매도량

개인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대금, 순매수량, 순매도대금, 순매도량

거래변동 상위: 순위, 종목, 증가, 등락, 등락률, 당일거래량, 전일거래량, 증감률

회전율 상위: 순위, 종목, 상승주식수, 당일거래량, 증가, 회전율, 등락률

투자주제별 매매동향

투자주제별 매매동향: 구분, 금용투자, 자산운용, 은행, 보험, 기관채, 개인, 외국인 매도, 매수,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대금, 순매수량, 순매도대금, 순매도량

기관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대금, 순매수량, 순매도대금, 순매도량

개인 순매수: 종목명, 순매수대금, 순매수량, 순매도대금, 순매도량

금리지표: 종목,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통안채, 국민채, CD, 콜, CP

KEBI 종합 국고채 지수: 종목, KEBI국고채종합, KEBI국고채3년, KEBI국고채5년

자금동향: 6월, 고액, 신용유지, 미수금, 선물, 펀드